
한암선사와 상원사 선원 대중들이 1936년 음력 9월 15일촬영한 사진


불기2965년(1938) 상원사동안거기념 촬영


탄허, 만화스님 상원사 문수전 앞에서 촬영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출토 유물을 살피는 만화선사


최초로 발굴된 일제강점기하 조선불교보국대 사진

사진으로 본 근대 1세기 오대산 역사와 삼화상



근대 오대산 삼대화상
월정사 발행
글 사진 윤창화 자현스님
민족사 펴냄/125,0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총 458편 사진수록…한국불교 중요사료
삼화상 생전 인연들 일일이 찾아서 채록
"6.25전란 속 자료소실 많아 아쉬움 커"

올 7월 29일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2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한 권은 〈근대 오대산 삼대화상-한암 · 탄허 · 만화선사의 사집집〉과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인 만화희찬 선사의 삶을 정리한 〈오대산을 지켜낸 선승, 만화희찬〉이다. 〈근대 오대산 삼대화상〉 사진집은 한암 · 탄허 · 만화 3대 고승의 생애와 삶, 가르침을 담은 영상 기록인 동시에 근대 오대산 산문(山門)의 생생한 역사이다. 또한 이 사진집 속에는 월정사 중창 불사 관련 사진, 근대 오대산 월정사 기록 사진 등 근현대 1세기 오대산 월정사의 전체를 아우르는 사진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진집은 오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넓게는 한국불교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한암선사(漢巖禪師, 1876~1951)는 일제 강점기와 근대를 통하여 조계종 종정을 4차례나 역임했으며, 정신적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사표적(師表的) 선승이다. 또한 일제의 친일 손짓을 거부한 채 오대산 상원사로 귀산해 한국 선을 중흥발전시키는데 전력했다. 특히 6.25 동란 때에는 상원사 전소를 온몸으로 저지했으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 범종(725년)을 화마(火魔)로부터 살려낸 장본인이다.

탄허선사(呑虛禪師, 1913~1983)도 근현대 고승으로 유불도 3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었다. 또한 화엄과 선, 유불도를 통합해 한국 사회와 불교의 미래에 대한 대안(원융, 공존)을 제시했으며, 오대산 수도원을 1956년에 설립해 승속을 아우르는 인재양성에 매진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신화엄경합론〉 〈사교(四敎)〉 〈사집(四集)〉 〈육조단경〉 〈보조법어〉 등 한국불교 승가 교육에 근간이 되는 전통 강원 교학의 텍스트를 완역해 간행했다.

만화선사(萬化禪師, 1922~1983)는 한국전쟁 때 전소된 오대산 월정사를 일으킨 중창주이다. 오늘날 오대산 월정사가 총림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게 된 것은 만화희찬 선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화선사는 한암선사의 승가오칙(참선,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과 탄허선사의 화엄사상, 유불도(儒佛道)의 융합사상을 계승한 실천자이다. 만화선사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한 사람의 장구(長久)한 염원이 향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증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진집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다. 이 사진집의 특징은 각 사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속의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은 물론 각 사진의 무대 및 촬영 배경, 시대적 ·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갖는 의미 등, 사진 설명이 입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사진을 통하여 근대 1세기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와 변천, 한암선사, 탄허선사, 만화선사의 생애와 사상, 가르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사진집 속에는 근대 한국불교의 여러 가지 모습도 볼 수 있다.

한 예로 한암선사와 관련된 사진 중 95쪽과 99쪽의 사진 설명, 105쪽의 한암선사 초대 조계종 종정 선출에 대한 사진 설명, 107쪽의 종정 선출 매일신보 기사, 113쪽의 사진 설명, 특히 125쪽의 한암선사가 경봉스님에게 보낸(1937년) 연하장에 대한 설명은 시대적 · 문화적 지식이 동원된 가치 있는 설명이다. 그리고 131쪽의 한암선사 좌탈 열반상에 대한 설명은 이 사진의 촬영자와 촬영자의 인물 정보, 이 사진의 배포 과정 등 전후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132쪽의 한암선사 열반에 대한 불교신문 보도 기사에서는 당시 불교 종단의 상황도 알 수 있다. 탄허 스님 관련 사진에서는 206쪽의 수도원생 모집 광고 설명은 이 하나의 사진 설명으로 오대산 수도원의 전모를 알 수 있으며, 광고 사진 역시 신문 전면을 그대로 수록했는데, 이 한 장만으로도 시대상을 볼 수 있다. 또 215쪽의 탄허 스님과 동국역경원 연수생 입소식 사진, 151쪽의 방산굴 사진 설명은 방산굴에 대한 사상적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224쪽의 여석회 사진 설명을 통해 여석회의 탄생과 역사를 알 수 있고, 280쪽의 화엄법회 사진 설명은 당시 화엄대법회의 성격, 수강자 개개인에 대한 상황 등 전모가 드러나 있다. 회향식 사진과수강자 명단에는 현 종정이신 중봉성파 대종사, 前 교육원장 무비스님도 포함되어 있다.

만화스님 관련 사진에서는 376쪽의 사진 설명, 그리고 400쪽의 '청담, 서운스님과 만화선사' 사진과 설명에는 당시 월정사 상황, 그리고 한 도량에서 대처승과 비구승이 대치하고 있는 분위기 등이 잘 전달되어 있다.

오대산 월정사 중창 관련 500쪽의 사진 설명에서는, 중창과정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504쪽의 낙성식 사진에서 낙성 과정은 물론 대웅전의 규모, 양식, 시대적 배경까지 알 수 있다. 월정사 기록 사진 부분에서는 520쪽의 조지훈과 월정사 사진, 특히 524쪽의 '조선불교보국대 사진'은 최초로 발굴된 일제강점기하의 조선불교 보국대 사진이다. 당시 조선불교계에는 31개 각 본산 별로 보국대가 조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선불교 보국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는데, 이 조선불교 보국대 사진은 일제강점기 조선불교 전체와 관련된 사진이다.

이렇듯 〈근대 오대산 삼대화상〉 사진집에는 일제 강점기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관련 사진 36여 점, 한암선사 관련 사진 80여 점, 탄허선사 관련 사진 158여 점, 만화선사 관련 사진 96여 점, 월정사 중창 관련 사진 34여 점, 월정사 관련 기록 사진 44여 점 등 총 458편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오대산 삼화상〉 간행위원장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은 "지난해부터 한암대선사와 탄허스님, 만화 스님 등 삼화상들의 흩어진 자료나 사진, 일화 등을 한군데 모아 보관할 필요성을 느껴 모으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외로 몰랐던 사진들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들 기억에는 있는데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한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각 스님은 "6.25라는 한국전쟁을 통해 유물들이 소실된 것은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3화상들과 생전에 접촉한 일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억을 되살려 채록했다"며 "특히 대구 파계사 도원 스님은 유일하게 생전에 한암 스님을 모셨던 분이셨다. 1938년도에 오대산으로 들어오셔서 6.25전쟁 전까지 10년 이상을 함께한 한암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채록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함께 교정을 본 무비 스님의 생생한 증언도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사진집을 통해 오대산 3대 화상의 유훈들이 잘 전승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간의 출간 과정을 전했다.

만화선사 조명한 최초의 책…"두 분 스승 모신 효상좌"



오대산을지켜낸선승, 만화희찬
글 자현 김광식 고영섭 박부영
민족사 펴냄/2만8천원

이 책은 6. 25동란 때 전소된 오대산 월정사 중창에 헌신한 만화선사의 생애와 삶에 대해 조명한 최초의 책이다.

1부에서는 자현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월정사 교무)이 '오대산을 지켜낸 선승, 만화희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인 만화희찬 스님의 성장과 출가 과정, 출가한 이후의 수행과정, 노사(老師)인 한암선사 시봉, 한암선사 열반과정과 오대산 월정사 중창 등 생애와 업적, 수행 등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2부에서는 '오대산 중창과 만화희찬 선사'라는 주제로 논문 6편이 수록되어 있다. 동국대 김광식 교수의 '만화희찬 선사의 삶과 오대산 불교문화' '오대성지의 중창주, 만화희찬 ; 승가오칙의 계승과 실천'이 서술돼 있고, 고영섭 교수의 '만화희찬과 오대산 총림화' '만화희찬의 월정사 적광전 중창과 인법당 상량문 분석', 그리고 박부영 기자의 '오대산 월정사 중창과 만화희찬 선사' '탄허의 수제자로서의 위상과 만화의 제자들'. 이상 6편의 연구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들에서는 만화선사의 오대산 월정사 중창과정과 역할, 한암-탄허-만화선사로 이어지는 오대산 법통, 그리고 만화희찬 선사의 생애와 삶, 가르침 등이 연구 정리되어 있다. 만화 스님은 한암 스님의 손제자이며 탄허 스님의 제자로 두 분의 스승을 동시에 모셨던 효(孝)상좌이다. 자현 스님은 만화스님에 대해, 만화 스님은 부처님 시자인 아난에 비견된다고 했는데,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25년 동안이나 모셨던 제자이다. 그리고 책 뒤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가산지관 스님이 쓴 〈만화희찬 대선사 행적 비명〉과 〈만회희찬 선사 연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주일 기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대원불교학술총서 • 1

한국불교통사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서를 지향하면서도 철저히 정사(正史)에 의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책은 새로운 형태의 한국불교사 입문서이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92쪽/값 20,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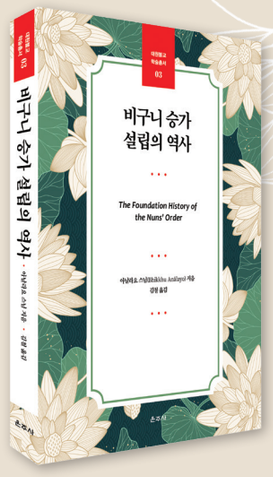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2

불교의 무의식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두 주제에 대해 유식학파의 알라야식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마음이론에 대한 정치한 체계를 만날 수 있다.

윌리엄 왈드론 지음/안성두 옮김/신국판/456쪽/값 23,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대원불교학술총서 • 3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 차별적 관습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초기 경전의 비교를 통해 밝혀낸다.

아날라요 스님 지음/김철 옮김/신국판/360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